

# “아버지의 빈자리”



최총희 (작가)

미국 세인트루이스 한인장로교회에서 사모로 섬기다가 2000년 미주 교양지 《광야》에서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현재는 귀국해 남편과 함께 주님의십자가 교회를 섬기며, 전남대 평생교육원에서 심리치료를 공부하며 상처 입은 이웃들을 섬기고 있다.

2001년 7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저는 유학생 남편을 따라 미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팔다리가 묶인 채 병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한창 무더운 여름이라 그런지 에어컨이 돌아가는 데도 병실 공기는 후덥지근했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서자 저를 알아본 아버지의 눈빛이 순간 밝아졌습니다. 뇌졸중으로 반신 마비가 되어 병실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는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양복에 중절모를 쓰고 깔끔한 모습으로 출근하시던 아버지, 등산과 사냥, 낚시를

좋아하고 친구들과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으셨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께서 얼마 남지 않은 백발과 희끗희끗한 수염이 삐죽삐죽 얼굴을 덮은 여든 후반의 노인으로 제 눈앞에 계신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 기억 속의 아버지는 늘 회사일로 바쁘고 분주하셨습니다. 재롱을 부려 본 기억이 없을 정도로 심정적으로 제게 먼 분이였지요. 그러다가 제가 열두 살 되던 해, 어머니가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와 이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새어머니가 들어오셨고, 그 이듬해에는 아버지와 새어머니 사이에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거실에 들어서는데,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아기를 무릎에 앉혀 놓고 재롱 부리는 아기를 보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외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혼자야. 엄마는 떠나 버렸고 아버지도 내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

막 사춘기로 접어든 저는 제 자신이 고아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동안 못 본 척, 이해하는 척하고 지냈지만, 어린 제게는 눈 앞의 현실이 원망스러웠고 말할 수 없이 외로웠습니다. 그렇게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저는 혼자 사시는 어머니를 찾게 되어 아버지 집을 떠나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저는 아버지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아니, 아버지와 가까이 있을 때조차 아버지는 바다 끝에 홀로 떠 있는 섬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멀리 계신 아버지께서 이제는 제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누워 계신 것이었습니다.

“안 돼. 안 된다! 이게 무슨 경우냐? 저리 가지 못해? 간호사들 다 어디 간 거야?”

아버지께서는 제가 기저귀를 갈아 드리려 하자, 자신의 수치스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완강히 거부 하셨습니다. 당시 병원 파업으로 의사와 간호원의 손이 모자라는 상황이었고, 새어머니는 이미 칠순을 넘긴 노인이셨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안 된다고 하셔도 할 수 없어요.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있으세요? 혼자 씻을 수나 있으시냐는 말이에요. 저도 어쩔 수 없어서 이러는 거예요.”

한바탕 실랑이를 하고 나서야 아버지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체념하셨습니다. 체구가 큰 아버지를 씻

기고 옷을 갈아 입히고 나면, 뜨거운 모래밭에서 한판 씨름이라도 한 듯 제 몸은 온통 땀 범벅이 되었습니다. 온몸의 힘이 소진되었지요. 시도 때도 없이 배설 조절이 안 되는 데다가 링거 바늘을 자꾸 뽑아서 결국은 사지가 묶여 있는 아버지. 그 동안 꼼짝 못하신 아버지의 몸 구석구석에는 살이 시커멓게 짓무르는 욕창이 심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애처로워 묶여 있는 팔다리를 풀어드리고 시시로 감시를 해야만 했습니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병실에서 아버지와 함께 씨름하면서 알 수 없는 분노와 설움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잠이 드시면 저는 병실 복도 창가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 한국으로 오는 동안,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마음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을 다 쏟아 놓으리라! 그 동안 아버지에게 섭섭했던 감정들, 버림받은 것 같았던 아픔과 마음의 상처들, 그리고 외로웠던 그 시간들을 다 풀어 내리라 작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맞은 현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묶여 있는 아버지는 제가 상상하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설움과 아픔을 받아 줄 아버지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늙고 병들어 힘없는 노인. 작은 것에도 쉽게 상처를 입는 연약한 노인. 나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버지만 거기 계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한 두 달은 제 생애 아버지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나날이었습니다. 수염을 깎아드리고, 로션을 발라드리고, 몸을 닦고 옷을 갈아 입히는 동안 아버지는 말 잘 듣는 어린아이처럼 가만히 계셨습니다. 땀 범벅이 되어

애쓰는 저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곁을 지키던 어느 고요한 새벽, 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를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아주 천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 총희야, 고맙다. 너는 내 고운 딸이다.”

처음 들어 보는, 아버지가 딸에게 들려준 따뜻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저는 아버지에게 제가 가진 가장 귀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전하는 복음을 달게 들으셨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냐고 하시며 그날 새벽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사실 예전의 아버지는 왜 교회가 ‘죄인, 죄인’하면서 사람을 주눅들게 만드느냐고 화를 내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그날은 복음에 조용히 귀 기울이셨고 진심으로 마음에 복음을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버지는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였고, 아는 찬송이 없는 것이 답답하셨는지 나름대로 작사, 작곡을 하여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세례 받기를 원하셔서 동네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친척들이 함께 한 병실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세례 받는 그 자리에서 안 믿는 친척들에게 “자네들도 꼭 예수님 믿게나! 그리고 나 죽거든 제 사 지내지 말아 주게” 하시며 전도도 하셨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자 아버지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는데, 그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환하고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미국에 오고 2주 후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14:18)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떠나시던 날, 마음의 조그만 방 구석에서 웅크리고 울고 있는 조그만 아이에게 부드러운 빛으로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애뜻함과 인자함이 가득한 눈길로 아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나를 보아라. 내가 너의 진정한 아버지다. 육신의 아버지는 너를 다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단다. 네가 뭘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사랑하는 딸아!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지만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영원하다. 나는 너를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한다!”

세계 사랑을 고백하는 그분은 생명 바쳐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의 완전하신 하늘 아버지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요14:18) 